

발행호: 42호

발행일: 2019.03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이태혁

발행기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ISSN 2671-4434

# N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 I. ISSUE TALK

[005] 차베스 사망 6주년: 베네수엘라 사태 분석 및 전망

김원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021]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 이주자 카라반

림수진 (멕시코 콜리마대학)

## II. LATIN AMERICA FOCUS - “ART”

[039] 조각 - 아르헨티나 나무에 빠지다

김윤신 (아르헨티나 한인 조각가)

[051] 음악 - 흥겨움 속에 숨겨진 한(恨)... 라틴아메리카 음악

장혜영 (부산외대)

[069] 미술 - 마리아 이스끼에르도 María Izquierdo의 <고통의 금요일 Viernes de Dolores>

우성주 (KAIST)

[079] 영화 - ‘마치스모’에 던지는 쿠바 신영화 <루시아>의 일갈(一喝)

박종욱 (KAIST)

## III. LATIN AMERICA BOOK JOURNEY

[091] 모든 내부는 외부를 가진다

- 미셸-롤프 트루요, 『과거 침묵시키기』 리뷰

권유리아 (부산외대)

## IV. LATIN AMERICA VOICES

[105] 라틴아메리카 “현장” 리포트

명세봉 (파라과이 한인상공회)

## V. IILAS NEWS

[115] 간추린 소식







## 차베스 사망 6주년: 베네수엘라 사태 분석 및 전망

김원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1. 서언

2016년부터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가 최근 연 1백만%에 달하고 가격통제와 외환통제에서 비롯된 상품 품귀현상이 극에 달하면서 베네수엘라인들의 해외 이주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구중 약 10%에 달하는 3백여만명이 최근 3년간 해외로 탈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콜롬비아 및 브라질 국경지역을 통한 국제구호물자 반입을 ‘외세의 침략’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차단하면서 유혈사태까지 빚어졌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은 2018년 5월 선거에서 승리해 올해 1월 10일 제2기 집권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 집권 당시 무력화되었었고, 지난 2015년 총선 승리 이후에도 결집력을 보이지 못했던 야권은 최근 후안 과이도(Juan Guaidó)라는 젊은 지도자를 의회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새로운 원동력을 얻어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과이도는 지난 1월 23일 자신을 사실상의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승인했으며, 캐나다와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도 뒤따랐다.

본고는 차베스가 지난 2013년 3월 5일 사망한지 만 6년만에 마두로 정권의 종말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현재의 상황과 향후 전망을 논하고자 한다.

## 2. 베네수엘라의 최근 경제 상황

베네수엘라인들의 해외탈출이 극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식품, 약품을 포함한 생필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가격통제로 말미암아 투자의욕을 상실한데다 외환통제로 인해 해외 공산품을 원활히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초인플레이 현상은 정상적인 시장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차베스 집권 당시 내세웠던 ‘21세기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국가가 각종 복지를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지만, 외화벌이의 대부분을 원유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로 볼 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2014년 하반기에 배럴당 1백달러 밑으로 추락한 유가는 최근에도 50달러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영석유회사(PDVSA)의 원유 생산량은 부패와 시설투자 부족으로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 2019년에는 일일 생산량이 1백만 배럴 미만으로 처져 1940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The Economist 2019d).

설상가상으로 베네수엘라의 대외부채는 쌓여만

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약 6백억 달러를 베네수엘라에 제공했고, 러시아의 차관규모도 약 1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채무상환 대신 장기 원유수급을 제공받아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의 45%는 그나마 이 두나라로 보내진다(The Economist 2019d). 이에 더해 트럼프 미 행정부는 마두로정권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PDVSA의 미국내 판매수입에 대한 처분권한을 차단한 상태다(The Economist 2019b).

갈수록 악화되는 베네수엘라 시민의 생활고를 덜기위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구호물자를 베네수엘라에 공급하고자 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콜롬비아의 국경도시인 쿠쿠타시에서 베네수엘라를 잇는 Simón Bolívar 다리와 Francisco de Paula Santander 다리를 통해 각각 20톤 분량의 식량과 의약품 및 각종 생필품을 실은 4대의 대형화물차를 베네수엘라로 진입시키려 시도했었다. 콜롬비아와 인접한 베네수엘라

국경도시인 Ureña와 San Antonio del Táchira로, 그리고 브라질의 국경도시 Pacaraima로부터 베네수엘라 영토내로 트럭진입이 시도되자 베네수엘라 정부군은 이를 불태웠다. 베네수엘라군은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에게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고, 베네수엘라의 친정부 민병대인 이른바 colectivo는 실탄을 사용해 3백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브라질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에서는 4명이 사망했다(The Economist 2019b; 동아일보 2019). 곧 이어 마두로는 콜롬비아가 반입을 도운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고 콜롬비아와의 단교를 선언하는 한편, 콜롬비아 외교관들의 출국을 명령했다.

### 3. 베네수엘라 정치 기상과 국제관계

이에 앞서 1월 5일 과이도는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분열되었던 베네수엘라 야권이 권력분점에 합의한 이래 인민의지당(Voluntad Popular)이 국회의장직을 맡기로 돼있었다. 당내에는 거물들이 포진해있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거나 칠레대사관에 망명중이거나 하여 35세의 무명 정치인이 등극한 셈이다(The Economist 2019e). 이로부터 보름 남짓이 1월 23일은 베네수엘라의 20세기 독재자 Marcos Pérez Jiménez 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 61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날 베네수엘라 전역에서는 1백만명여이 마두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과이도는 이날 한 시위 현장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자신을 ‘사실상의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대통령이 유고일 경우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임시 승계하는 규정을 원용했고 마두로의 2018년 5월 대선은 부정선거이며 1월 10일 2기 취임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그의 주장은 베네수엘라 의회,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52개국의 승인으로 이어졌다(The Economist 2019c).

마침내 베네수엘라 정국은 마두로 정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정부와 야권간의 권력관계에 의미있는 첫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과이도는 중남미 지역내 민주주의 인사들로부터 “품격있고 진지하며 신뢰할

만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마두로를 퇴진시키기 위한 국내외적 힘의 결집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Bitar 2019). 위에 언급한 2월 23일 구호물자 진입도 과이도가 날짜를 잡아 시도한 것이었다.

과이도는 2월 25일 보고타에서 열리는 리마그룹 회의에 앞서 일부 군경요원들의 협조를 받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 리마그룹은 2017년 8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중남미 14개국의 협의체이다. 금번 리마그룹회의에는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했으나 2017년 12월 좌파정권이 출범한 멕시코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마두로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Rafael Lacava 카라보보주 주지사 등 4명의 주지사를 기존의 마두로 정권 주요인사 제재대상자 명단에 추가한 것이다. 라카바 주지사는 2018년 미국시민의 석방을 중재한 인물로 그간 명단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에 금번 조치는



마두로 정권을 더욱 압박하는데 의미가 있다. 금번 리마그룹 회의는 군사행동을 배제하는 대신 국제형사재판소로 하여금 마두로 정권의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The Economist 2019b).

그러나 국제기류는 과이도라는 대안의 등장을 업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장애물이 있다면, 마두로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베네수엘라 군과 쿠바 첩보 요원들이다. 마두로는 차베스 시대의 유산물로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을 군의 관리하에 두고 있다. 이는 군의 구조적 부패를 야기하는 한편, 군의 충성을 보장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또한 청년기부터 쿠바와의 관계가 각별했던 마두로는 차베스의 친쿠바 정책을 계승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쿠바 첩보조직으로부터 매일 아침 베네수엘라 군경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동향보고를 받고 있다. 최근 베네수엘라 군의 일부 세력이 쿠데타 시도를 기도했으나 곧 체포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군 핵심의 충성과 효과적인 첩보망 덕분이기도 하다.

#### 4.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분석

올해들어 미국정부는 대 베네수엘라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52개국으로부터 임시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이도는 2월 23일 트위터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모든 옵션을 열어 두어야함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올렸다(The Economist 2019b). 이어 2월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이제 절박한 베네수엘라인을 위해 행동할 때”라며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미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개입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동아일보 2019).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구호 물자에 대한 베네수엘라측의 무자비한 행위에 따라 “다양한 다국적 행동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힘을 실어주었다(The Economist 2019b).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해외 군사전략 추이를 살펴

보면 기존의 전쟁에서 발을 빼고, 새 전쟁에 결코 발을 담그려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것인가. 작금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아래와 같이 제약점이 많다.

첫째, 1989년 파나마 침공의 경우와 비교하면, 당시 미국은 2만6천명의 병력을 동원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미 파나마에 주둔해 있었고 작전을 6주 내 종료되었다. 당시 미국측 사망자는 23명, 파나마측 군과 시민 사망자는 각각 3백여명에 달했다(The Economist 2019c). 파나마는 인구나 영토면에서 소국이지만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수렁에 빠졌던 이라크의 두배나 되는 영토를 갖고 있다.

둘째, 베네수엘라의 군은 부패해있고 전투경험이 없으며 무기가 노후화돼있고 정비결여상태여서 결코 정예부대라고 할 수 없지만 병력 수는 13만명이나 된다.

미국이 침공을 감행할 경우 다수의 베네수엘라인들은 ‘양키의 침략’에 맞서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규군에 보태어 조직폭력단이나 친정부 무장민병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무력충돌은 곧 콜롬비아로 확산될 수도 있다. 콜롬비아가 군사개입의 전초기지로 역할 할 경우,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의 쉬운 반격 목표가 된다. 베네수엘라 공군은 러시아제 수호기 23대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한 대라도 보고타 상공에서 공습을 감행하는 상황은 누구도 상상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2016년 콜롬비아혁명군(FARC)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잦은 무장소요를 겪고 있다. 특히 게릴라조직인 민족해방군(ELN)은 베네수엘라에 은둔해 있어서 대(對)마두로 군사행동은 역내 충돌로 비화될 위험이 크다.

넷째, 지금까지 마두로를 옹호해온 일부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특히 유엔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수천명의 군사고문관 및 첩보보안요원, 의사들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하고 있는 쿠바도 고려해야하거니와, 마두로 정권과 전략적 경제적 거래를 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한다. 군사개입은 유엔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설령 미국의 군사행동이 단기간내 성공을 거둔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집권하는 새 정부는 국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중남미 전역에 걸쳐 미 제국주의 규탄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우려도 크다.

여섯째, 직접적인 군사개입 대신 반(反)마두로 세력에게 군수물자를 대어 항전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과거 니카라과 반군(Contra)을 미국이 지원해 중미내란이 장기화되었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이 역시 결코 간단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결국 공수 또는 안전한 지역을 통해 인도적 물자 지원으로 개입범위를 한정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The Economist 2019a). 엄격히 말해 세계 52개국이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 승인한 것도 민주적 선거를 기대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사실 미국도 베네수엘라 상황과 관련해 가장 이해관계가 큰 것은, 대량의 이주민 물결과 베네수엘라측의 국제마약거래 방치 및 콜롬비아게릴라의 은둔허용일 뿐이다(The Economist 2019c).

그러나 군사행동은 돌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단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를 빌미로 군사행동이 감행될 여지는 언제나 열려있다. 파나마 침공 역시 미국시민에 대한 폭력행사가 단초가 되었었다. 과이도는 리마그룹회의에 참석한 해외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빠져 나온 이래 3월 4일 현재 남미국가들을 순방하며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요청하고 있는데 만일 그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측이 그나 그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입히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 역시 군사행동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5. 결어

차베스 정권 출범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중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재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 야권이 한 사람의 지도자 아래 결집되었으며, 경제파탄으로 인해 과거 지지기반 이었던 서민층의 생활이 궁핍해져 불만이 확산돼 있으며, 중남미지역내 국가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마두로 축출을 통해 베네수엘라 사태를 단숨에 해결하는 속결 전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해결방안에 대한 지지를 서서히 넓혀가는 안전 전략을 택할 것인지 기로에 당면해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중남미 여타국가들의 입장이 제각각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 논술한 바와 같이 외세에 의한 마두로 정권 축출은 위험부담이 커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전전략의 경우도 이행 과정이 너무 늘어지면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마두로가 결코 정권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효한 반(反) 마두로 세력을 폭넓게 조성시켜나가는 길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즉, 열쇠를 베네수엘라 군이 쥐고 있는 만큼 군의 이탈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군이 마두로를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구성케 하든가, 아니면 중간과정을 건너뛰고 과이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과이도를 위시한 의회세력이 ‘집권세력의 해외 망명 보장과 정권 이탈자의 사면’ 등을 약속한 것도 군이 이같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군경내 반(反) 마두로 진영으로의 이탈자는 5백명 이하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이미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The Economist 2019b; 동아일보 2019).



또한 필자의 시각에서는, 설사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 마두로 정권이 몰락하고 베네수엘라에 신정부가 들어선다하더라도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회복, 거시경제의 안정화, 석유산업의 정상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안게 될 것이다. 필자는 20세기 후반 이래 베네수엘라의 국가역량(state capacity)으로 볼 때 이는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고 여겨진다. 1970년대 중남미 최고의 부유국이자 세계 20대 부국중 하나였던 (Naim & Toro 2018) 베네수엘라가 안정된 민주국가로 거듭나기까지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해 보인다.

##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 이주자 카라반

림수진 (멕시코 콜리마대학 교수)

그 시작은, 지극히 미미하였다. 2018년 10월 12일 일요일 이른 오전 8시 경 온두라스 제 2도시인 산 페드로 술라 San Pedro Sula 시외버스 터미널에 모인 160 여 명이 행진을 시작하였을 때만해도 그 누구도 불과 일주일 후의 일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난 며칠 간 SNS 상에 떠돌던 ‘이주 행렬 자율 모집 Autoconvocatoria Caminata de Migrantes’ 공고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과연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가 있었을 것이고, 당시 모인 160여 명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숫자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 중 그 누구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카라반의 숫자가 7,000명까지 불어날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행렬에 세상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는 더더욱 생각지 못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뒤를 이어 2차, 3차, 4차, 그리고 해를 넘겨서까지 이주자 카라반이 차수를 거듭하며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상상키 어려웠을 것이다. 지극히 미미한 시작에 비한다면, 실로 끝 모를 창대함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10월 온두라스인들이 주축이 되어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라 불리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합류한 이주자 카라반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이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였다. ‘북’을 향해 출발한 이주자 카라반이 자국을 벗어나 아직 멕시코 남쪽 국경에 닿기도 전이었으나, 연일 그들을 향해 선전포고에 가까운 문자들을 트위팅하였다. 처음에는 당부 차원이었다. 카라반에 참가한 이주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절대로 자국을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이주자들의 본국 정부에게는 어떻게든 자국민을 국경 밖으로 내보내지 말 것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그러나 카라반이 계속 ‘북’을 향해 이동하면서 자신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듯 하자 이들에 대한

매도와 자국 정부에 대한 협박이 맹렬하게 이어졌다. 이 와중에 자연스레 세계 언론들이 그들의 행렬을 좇아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당장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에 두고 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미션이었다. 즉각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멕시코와 접한 자국의 남서쪽 국경으로 파견하였다. 이어 대선 때부터 주장해오던 국경 장벽에 대한 긴급성을 피력하며 예산 입안과 의결권을 쥐고 있는 국회를 압박했다. 동시에 이주자 카라반이 만들어진 온두라스와, 이어 합류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각 국 정부에는 자국의 국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그들이 미국에 이르게 한다면 그간 이루어졌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 카라반이 계속해서 ‘북’을 향해 올라오자 이들에 직접적인 맹공격이 이어졌다. 이주자 카라반 자체가 반미 세력에 의해 조직되었고, 실제로 중미 지역의 극악한 범죄 집단으로 간주되는 MS-13이나 B-18이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이슬람 무장세력인 IS가 이들

가운데 섞여 선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트위팅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루에도 수 차례씩 공개적으로 발표되던 트럼프의 강경한 메시지는 이주자 카라반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트럼프의 압력에 못 이긴 중앙아메리카 각 국 정부들이 자국의 공중과 방송을 통해 자국민들에게 이주자 카라반 합류를 자제해 줄 것을 연일 요청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주자 카라반이 실제 진행되고 있음을 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해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결국 온두라스 산페드로 술라 버스터미널에서 시작된 160여 명의 이주자 카라반이 불과 1주일 사이에 7000명으로 불어날 수 있기까지 가장 큰 선전을 해준 이는 정작 트럼프 자신이었던 셈이다.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이주자 카라반은 정확히 1주일 후에 멕시코 남쪽 국경에 닿았다. 그 사이 이주자 카라반의 출신국인 중앙아메리카 3개 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로 압박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어쨌든 이들이 미국에 닿기 전에 막아보겠다는 심산이었다. 멕시코와 재협상 과정에 있던 NAFTA와 DACA(비합법 입국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꺼내들었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주자 카라반 개개인이 원할 경우 멕시코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비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한 와중에 미국의 압력으로 과테말라와 닿은 남쪽 국경도시 Ciudad de Hidalgo에 200여 명의 연방경찰을 군 수송기로 실어 파견하였다. 물론, 7,000여 명에 달하는 이주자 행렬을 막겠다고 200여 명의 연방경찰을 파견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은 미국의 압력 앞에 어쩔 수 없는 매우 형식적인 조치였다. 또한 국경 앞에 진을 친 이주자 카라반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과 입국시 인적정보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조건 마저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10월 19일 작은 철문으로 연결된 멕시코 남쪽 국경은 이주자 카라반의 몇 번 발길질로 쉽게 열렸고, 이어 2차 3차 카라반이 북을 향해 멕시코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주자 카라반이 멕시코에 들어온 이후 트럼프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고 세계 언론들도 이들의 행렬을 연일 보도하면서 이들이 미국 국경에 닿을 시점과 루트 등을 점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주자 카라반을 ‘침입자’로 간주하였고 10월 25일 멕시코와 맞닿은 자국 남쪽 국경에 5,000 명에 달하는 무장 병력을 배치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라는 비난을 더하였다.

반면, 멕시코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당시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대통령(2018년 11월 30일까지 임기)은 이주자 카라반 참가자들에게 원한다면 멕시코 남부지역인 오아하카 주와 치아파스 주에 거주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이들의 거주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작될 임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던 차기 대통령(2018년 12월 1일 임기 시작)은 좀 더 적극적이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 어떤 국적의 경우라도 거주 허가는 물론, 노동허가까지 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자들의 목적지는 확실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였다.

무엇보다도, 이주자 카라반이 멕시코의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멕시코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였다. 이주자들이 ‘북’을 향해 지나는 모든 곳에서 멕시코 시민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다. 때에 따라 1만 명을 넘어서는 숫자가 한꺼번에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멕시코 시민들의 호의가 끊이지 않았다. 연일 이에 관한 뉴스가 보도 되면서, 멕시코 뿐 아니라 세계 언론이 놀랄 정도로 이들의 호의는 극진하였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그 어떤 뚜렷한 지도부를 갖지 않은 이주자 카라반의 주 소통 방식은 SNS 서비스였다. 시작부터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한 이들은 여전히 행진 도중에도 이를 통해 ‘북’을 향한 루트를 정하거나 쉬어가야 할 도시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카라반은 하루에 평균 40km 정도의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상당 구간



교통을 이용하기도 했다. 일부 구간에서는 멕시코 지방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이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주자들이 멕시코 내에서 약 3500km를 이동하는 동안 그 어떤 경비도 지출하지 않고 불과 한 달 만에 북쪽 국경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멕시코 시민들과 지방정부가 제공해준 잠자리와 음식 그리고 여러가지 교통 서비스 덕분이었다.

이주자 카라반이 시작된 지 25일째 되던 11월 6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카라반에 참여한 이주자들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북진하는 이주자 카라반을 막지 못한 채 중간선거를 치뤄야 했다. 또한 이주자들은 마침 같은 날 멕시코 시티에 입성하여 북쪽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여느 때처럼 이쯤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고, 카라반은 계속 북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주자 카라반의 미국 도착이 점점 현실화 되면서 그간 이들을 향해 절대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 엄포를 놓던 트럼프는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난민신청을 원할 경우 굳이 미국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이 ‘안전한 제 3국(멕시코)’에서 먼저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그 경우에 한해서만 차후 미국 내 난민신청을 받아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물론, 이주자 카라반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북’을 향한 이들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결국 약 4,000km를 이동하여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닿은 이주자 카라반과 미국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첫 충돌은 11월 25일이었다. 이주자 카라반은 무력으로 미국 국경을 넘으려 하였고, 미국 정부는 헬기를 띄운 채 최루탄을 쏘아가며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이어 추수감사절 연휴로 엄청난 수의 통과 여객이 분명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국경을 폐쇄하기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이주자 카라반 뿐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여러 주체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채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을 야기하였다.

약 한달 반 정도 트럼프의 거친 메시지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아가며 진행된 2018년 후반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 3개 국 출신의 이주자 카라반은 그간 이 지역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던 ‘이주’와 전혀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또한 독특한 사회적 반응들을 야기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향한 이주 혹은 ‘북’을 향한 이주라는 것은 그간 이 지역에서 공공연했으나 공개적인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 어떤 언론도 이들의 이주 루트를 좇지 않았다. 그간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이들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이주라는 것은 지극히 개별적인 선택이었다.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루트를 정하고 각자가 이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2018년 10월부터 이어진 ‘북’을 향한 이주자 카라반은 기존과 전혀 상이한 특색을 갖는다. 처음 이주자 카라반이 시작될 때 공개적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모집되었다는 점과 카라반이 시작된 이후로도 이들 스스로 그들의 이주를 끊임없이 공개하면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이다. 또한 ‘이주자 카라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실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일 맹공을 쏟아붓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들 스스로 대응해 나가는가 하면, 이주 과정에서 필요악으로 여겨졌던 이주 부로커와 전혀 연결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이주자 카라반의 모집부터 미국 국경에 이르는 행진까지 자율적으로 조직해냈다는 점 또한 특이한 양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이주자들이 ‘북’, 즉 미국을 향한 이주에서 보여준 양상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다. 더불어 기존에 미국을 향한 이주자 대부분이 젊은 남성층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카라반에 참가한 사람들의 성별과 연령대가 훨씬 다양해졌다는 점 역시 독특한 현상으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18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행해진 이주자 카라반이 기존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이주과 비교했을 때 갖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이주의 원인이다. 과거 이 지역에서 미국을 향한 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적 이유였다.

오늘 날에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각 곳 이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이주자 카라반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자국 내 치안 부재다. 물론,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난민신청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어떤 인터뷰에서도 자기 삶 주변의 치안 부재를 언급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음을 주장하지만, 최근 수 년간 이 지역이 미국으로 올라가는 마약의 주 루트가 되어버린 상황과, 이를 둘러싼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남하, 그리고 이미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에 준할 정도로 위험한 집단으로 분류된 MS-13이나 B-18등의 분포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슬프게도,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를 허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이 지역 살인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8년 11월 25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국경 너머 미국 군병력과 충돌한 이후, 이주자 카라반은 응집력을 잃기 시작했다.

뚜렷한 지도부 없이 4,000km이상 ‘북’을 향해 올라온 이들이 마지막 관문인 미국 국경을 넘기 전 맞닥뜨린 ‘장벽’은 철옹성 같은 트럼프 정책 뿐 아니었다. 희망의 문이 열리기 직전, 마지막 관문에서 언제까지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던 이들에게 티후아나의 겨울 추위는 혹독함 그 자체였다. 연일 기온은 섭씨10도 언저리에 머물렀고, 계절 특성 상 비까지 내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이들 대부분이 자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추위 속에서 풍찬노숙을 하기는 그리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한 것은 티후아나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역사적으로, 티후아나라는 도시 자체가 이주자들이 만들어낸 도시이기도 하고, 월경하는 이주자들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이 이 도시의 성장동력이었기에, 티후아나는 이주자에게 매우 친절한 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때문에 이주자 카라반도 멕시코에 들어온 후, 가장 빠른 루트인 텍사스로 들어가는 노정 대신 가장 먼 거리인 티후아나를 거쳐 들어가는 루트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이주자 카라반이

티후아나로 일시에 몰려들면서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상당 수 티후아나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관문이 되어주던 미국 국경이 11월 25일, 그것도 추수감사절이 낀 주말에 이주자 카라반의 월경 시도로 닫히게 되자 티후아나 시민들의 이주자 카라반에 대한 불만이 첨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내 곳곳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멕시코 정부의 지원으로 이주자 카라반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 3개국 사람들 대부분이 자국으로의 귀환을 택하게 된다. 이곳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있던 시기적 요인 또한 한 몫 했을 것이다. 멕시코 정부가 이들에게 거주 허가과 노동 허가를 내주겠노라 발표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락한 멕시코 폐소화 가치가 이들에게 큰 매력을 주진 못한 듯하다. 물론, 이 부분을 두고 이주자 카라반 형성 원인이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이지 않겠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어쨌든, 자국 내 치안 부재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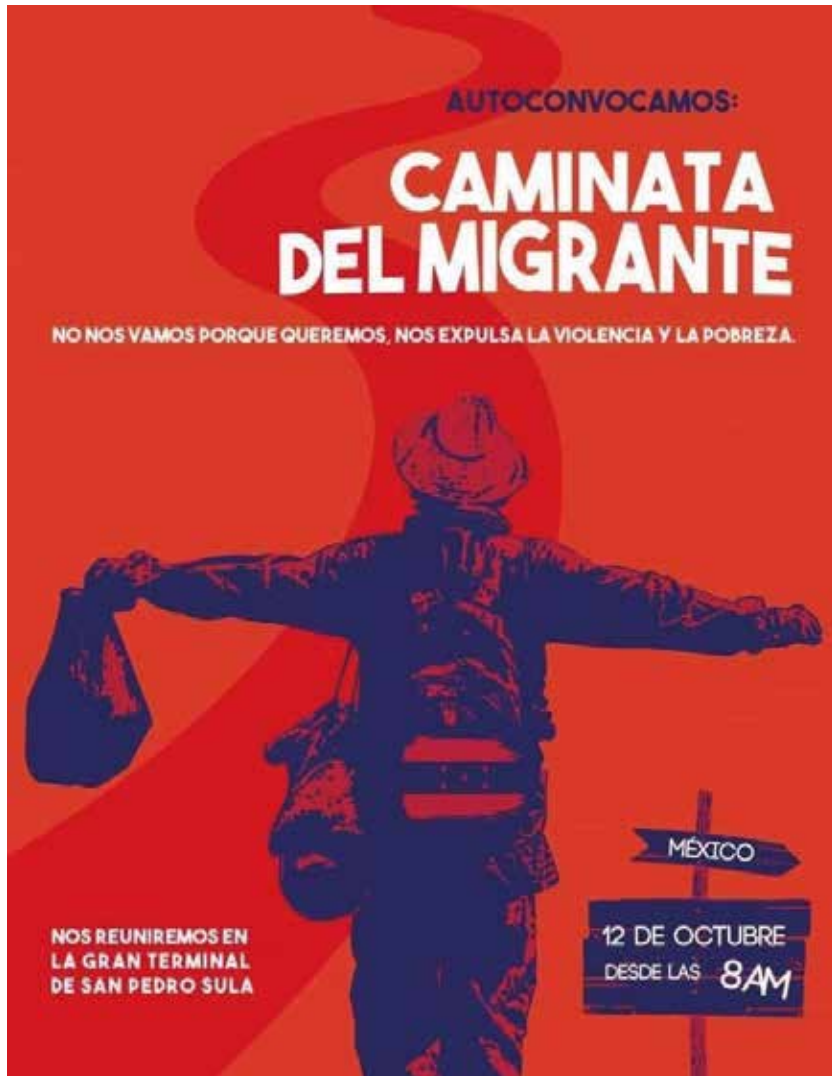
이유로 내걸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이주자 카라반이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멕시코 전역을 파도처럼 휩쓸고 갔다. 처음 온두라스의 산 빼드로 술라의 버스터미널에서 시작된 160명이라는 미미한 숫자에 비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셈이다. 뚜렷한 지도부도 없이 그들 스스로 조직한 이주자 카라반이 비교적 정연한 질서 속에 4,000km 이상을 이동하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파생시켰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던 미국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성공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은 이주자 카라반이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혹은 연례적으로 행해진다면, 오랜 시간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 미국을 향해 이루어졌던 이주 양상에 분명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2018년 10월 온두라스 한 버스터미널에서 시작된 ‘미미한 시작’이 어떠한 ‘창대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사진출처: <http://www.eluniversal.com.mx/mundo/el-desgarrador-relato-del-autor-de-la-foto-de-la-migrante-hondurena-aferrada-sus-dos-ninas>

사진설명: 2018년 11월 25일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으로 월경을 시도하던 이주자 카라반에 미국 국경에 배치되어 있던 군병력이 최루탄을 발사하였다. 이후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 최루탄을 발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출처: <https://diarioalmomento.com/ley-norteamericana-concede-calidad-de-refugiados-a-grandes-grupos-e3TQ0e3De3xe3A.html>

사진설명: 2018년 10월 초 SNS를 통해 공개된 이주자 카라반 자유포집 포스터



## 아르헨티나 나무에 빠지다

김윤신 (아르헨티나 한인 조각가) <sup>1)</sup>

파괴되지 않은 자연, 광활한 땅과 푸른 초원, 수없이  
널리 있는 방목된 소들의 무리, 하늘과 땅이 맞닿아  
사방이 둥글게 보이고, 가도 가도 산은 볼 수 없었다.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비행기로  
뿌리고 기계로 추수해서 짐승과 벌레들이 다 먹고 난  
후에도 엄청난 곡식들이 풍요롭게 널리 있었다. 이곳,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은 자유로우며 여유가 있고  
친절하며 순수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조각  
재료들과 지하 자원이 많은가 하면 엄청나게 귀한 돌과  
나무가 산재했다.

---

1) 1935년 원산 (출생) 한국과 프랑스에서 미술을 전공한 김윤신 교수는 아르헨티나의 나무  
재료의 매력에 빠져 지난 1984년부터 아르헨티나에 정착해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보다 넓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으로 본인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알려졌던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을 때 사방곳곳에 널려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들과 끝없는 팜파의 평원을 바라보면서 천연의 모습으로, 신의 축복을 받은 이곳 아르헨티나에 매료되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

Argentina의 나무 중에 쇠나 돌처럼 무겁고 단단하여 물에 가라앉는 Palo Santo는 성스러운 나무라는 뜻으로 향이 좋고 기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배의 물속 프로펠러에 들어가는 부품으로도 사용된다. Palo Santo는 너무 단단해 끌질을 하면 끌이 튕겨 나오거나 부러질 때도 있었다. 그와 맞먹게 단단한 lapacho와 quebracho는 건축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목재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북쪽과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 주로 서식하는 Algarrobo는 인디오(남미 토종 원주민)들의 쉼터로 그리고 열매는 식용으로 오래 전부터 그들과 삶을 함께 해 온 중요한 나무이다. 현재는 건축재료와 좋은 가구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는 목재로 작업을 할 때 마치 흙을 빚는 듯한

투박함과 소박한 느낌을 주어 나도 조각재료로 즐겨 사용한다. 팜파에서 서식하는 돌레가 큰 Calden은 나무의 질이 부드러워 풍부하고 여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틀어지거나 갈라짐이 없어 무척 좋은 조각 재료이다.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 만년설 지역에서부터 북부지방의 아열대 그리고 중부의 다습한 지역 남부의 추운 지역까지 다양한 기후와 토양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매력적인 나무들이 많다.

마라도나와 메시가 대표하는 축구의 나라, 까를로스 가르델로 대표되는 탱고의 나라, 건축물과 문화가 유럽풍인 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도착했던 35년전과 지금, 강산이 세번 반이나 바뀌었을 세월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도시이다.

도시외관도 큰 변화가 없지만 생활 습관에도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인다. 아침이면 신문 들고 자기 아파트 근처의 커피 집에서 아침을 먹으며, 많게는 15마리 정도의 개를 산책시키는 직업의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고, 해가 좋은 날에는 어디에서든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들, 어떤 경우이든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줄을 서 기다리는 인내심, 저녁식사 시작은 9시나 되어야 시작하고.....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이민생활에서 나는 처음부터 작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초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었다. 하지만 쉼 없이 작업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풍요로운 재료들 앞에서 느끼는 벅찬 행복감으로 모든 힘을 다 해 나무를 절단할 때는 마냥 즐겁기만 했다.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작품은 나에게 더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어 하루도 쉬지 않고 작품에 몰두했다. 힘이 드는 큰 조각 작업을 주로 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작업하다 보니 조수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 끝까지 혼자 작업하는 습관이 몸에 밴 내 모습이 현지인들에게 알려지자 “당신은 여성 중에 여성 조각가 중에 뛰어난 조각가라며 어렵고 힘든 작업을 혼자 잘도 해 낸다”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최고라고 가리키며 위안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30여년을 작업에 몰두하며 언어를 배울 기회가 적어 이 나라 작가들을 만나면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반은 눈치로 반은 어설프게 알아들으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이제는 별로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예술이란 세계 공통언어 속에서 그들과 나의 작품을 통해 상호 간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의 초기 조각과 회화 작업은 인간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염원을 수직 지향으로 표현하였다면 남미에서의 작업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과의 대화를 내 영혼의 노래라는 주제로 풍부한 조각 재료와 더 넓어진 작업공간으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작품의 크기도 더 커지게 되었다.

오랜 시간을 작업에만 몰두해 온 미술가의 꿈이라면 개인 미술관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1978년작, 26x25x80, 제목-1999.9.9-믿음. 소나무



2016년작, 130x210x40, 내 영혼의 노래, algarrobo



2012년작, 150x460, 내 영혼의 노래, 캔버스에 유화

외국인으로 타국에서 특별한 경제활동도 없이 굶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다행인데 꿈꾸던 미술관을 만들 기회가 우연하게 왔다. 한인들이 상권을 장악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Flores 지역에 단층 건물을 보고 맘에 들었지만 생각보다 시세가 높아 포기하려던 차에 지인들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건물을 구입을 할 수 있었고, 그 곳에 화랑과 작업장을 만들어 처음으로 내 화랑에서 전시를 했는데 교민들로 대성황을 이뤘고, 작품을 많이 구입해 주어 작품을 판매한 돈으로 건물을 2층, 3층까지 올릴 수 있었고, 2층은 미술관, 3층은 주택으로 단장했다.

2008년 10월 28일 ‘Museo Kim Yun Shin’ 김윤신 미술관을 개관 하였고 그 후의 모든 행사들에 많은 귀빈들이 방문해 주셨다.

주아 한국 대사관의 대사님, 문화원장님을 비롯해 지금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신 마우리시오 마끄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홀리오 꼬보스 부통령 내외 그리고 많은 현지 작가와 친구들...



마우리시오 마끄리 현재 대통령과 김병권 대사님  
홀리오 꼬보스 부통령과 김윤신 작가.

귀빈들의 축하 속에 아르헨티나에서 내 이름으로 개인 미술관을 개관했고, 2010년부터 해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주관의 ‘La Noche de los Museo’행사에 초대되어 새로운 작품과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고 있다.

La Noche de los Museo 는 ‘박물관의 밤’ 또는 ‘미술관의 밤’ 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 남미 지역의 절기로 봄인 11월 둘째 토요일 저녁 8시~새벽 3시까지 하루 밤 행사로, 참여하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그곳을 지나는 버스노선과 지하철은 무료승차 자전거 무료대여 그리고 시에서

파견되는 안내 도우미들의 도움으로 진행 되어진다.

문화축제의 날로 대변되는 이날은 전시회 외에도 연주회와 공연도 함께 이루어져 각 전시장에는 줄을 길게 서서 들어가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시내 중심에서는 조금 떨어져있는 ‘김윤신 미술관’에도 500~800여명의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가족들로 친구들로 몇 명씩 짝지어 방문하며 전시된 작품감상과 연주회와 사물놀이 그리고 다큐영화를 보고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보낸다.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이민 1세대로 그것도 가장 먼 나라의 한국인이 미술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놀라움 이였다. 한국인의 미술관이라는 특성상 한국음식을 소개하기도 또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독도의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며 매년 한인2세들의 사물놀이 팀인 누리패의 공연도 초청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 기념의 해로 그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치원 때부터 미술관 관람을 교육하는 아르헨티나 학교들은 봄 가을 학기 중에는 미술관 현장수업을 많이 하는데 인솔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여 어떤 불상사에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되어 참여한다.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느낌과 질문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전시된 작품과 작가론까지도 자연스럽게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의 미술관에 오는 관람객들에게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나무조각 작품을 만져 보게 하여 눈으로만 보는 작품과 만져서 느끼는 작품의 차이, 잘려진 면의 속살과 껍질에서 느끼는 감각, 다른 종류의 나무가 풍기는 향기 등을 직접 체험하고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 하게하는 어느 미술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시도하고 있어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일에 김윤신 미술관 10주년 기념식과 “FUSIÓN Y EXPANSIÓN” 확장과 융합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통해 지난 10년은 나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다른 작가의 작품도 전시하여 더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려 한다.

이렇게 나의 꿈을 이루기까지 가까이에서 멀리서 많은 도움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분들에게 더 좋은 작품들을 남겨서 예술가로서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만이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나의 작업은 계속된다.





## 흥겨움 속에 숨겨진 한(恨)... 라틴아메리카 음악

장혜영 (부산외대 중남미학부 교수)



사진1: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심에 있는 콜론 극장  
- 유럽적인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오페라 하우스이다.



줄여서 ‘라틴 음악’ 이라고도 부르는 라틴아메리카의 음악은 우리에게서 저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삶 속으로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었다.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던 로스 판초스의 멜랑콜릭한 트리오 음악이 친숙하고, 그래서 베사메 무초 같은 볼레로는 번안되어 인기를 끌어 전직 대통령이 애창곡으로 불렀을 정도이다. 중년 세대에게는 ‘라 밤바’ 같은 영화를 통해 소개된 음악들이, 또 유튜브 등으로 언제나 세계 각국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현재 세대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Despacito, 천천히)’나 월드컵 개막식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샤키라의 노래 등이 전혀 낯설지 않다.

그러한 라틴아메리카 음악 하면 먼저 딱 떠올리는 이미지는 신나는 댄스 음악이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춤을 많이 즐기고 춤의 리듬을 바탕으로 한 음악들이 유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음악의 원류를 찾아보면 그저 즐겁게 춤추고 신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 음악은 ‘정복자’의 이름으로 들어온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문화, 원래 이 땅의 사람들이었던 원주민들의 문화, 노예로 끌려와야 했던 아프리카인들의 한 많은 문화에 또 다른 유럽계 이민자들과 일부 아시아인들의 문화까지 섞인 혼혈 문화의 대표적 결과물이다. 1492년 콜럼버스의 도착 이후 19세기까지 대륙을 점령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음악 속의 유럽적 요소들과 음악 형식이 큰 틀을 이루고 있지만 원주민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안데스 지역에는 원주민들의 오래된 음악 전통이,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들이 많이 유입된 곳에서는 노예들이 고단한 삶에 위안을 얻기 위해 부르던 노래나 연주하던 댄스 리듬들이 유럽음악의 형식 안에서도 강렬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다양함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나아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음악은 크게 카리브해 음악과 남아메리카 음악, 멕시코 음악, 그리고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등 지역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미국 팝 음악계에 영향을 끼치며 세계 대중

음악계에 일치감치 들어선 지역이라면 쿠바를 중심으로 한 카리브해의 나라들을 들 수 있겠다.



사진2: 아름다운 카리브해의 바다, 쿠바의 바라데로.  
그러나 이 바다를 둘러싼 역사는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

카리브해는 스페인 최초의 식민 지역이자 최후의 식민지역이었다. 콜럼버스는 1492년 쿠바 바깥쪽의 바하마 제도에 도착한 뒤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 도밍고에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다. 이 지역에는 타이노 계통의 원주민이 있었으나 큰 문명을 지니지는 않았으며 그래서인지 콜럼버스와 이후에 들어온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을 거의 몰살시켜 버렸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지자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 들여오기 시작했다.

쿠바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섬이라 스페인이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스페인의 문화들이 물밀듯이 쿠바로 들어오고 거기에 아프리카에 끌려온 노예들의 음악과 춤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쿠바와 카리브해 음악에는 플라멩코나 세기디야, 가벼운 경가극인 사르수엘라의 노래들 등 스페인 음악적인 요소와 아프리카적인 타악기 활용 및 리듬, 특히 싱커페이션이라 불리는 당김음의 효과가 강한 곡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오페라인 비제의 카르멘에 등장하는 ‘아바네라(Habanera)’

리듬을 들 수 있겠다. 쿠바의 리듬이 유럽에서 유행해 프랑스 작곡가의 오페라에까지 등장한 것이다.

쿠바는 모데르니즘의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호세 마르티의 주도로 스페인에 대항해 싸웠으나 19세기말까지 독립을 못하다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지면서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끝이 났다. 이후 미국의 군정 시기를 지나 1902년 독립을 하게 되나 미국의 개입은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쿠바는 음악적으로 미국 재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미국 재즈 역시 노예로 들어온 아프리카인들의 리듬과 유럽의 음악 형식에 바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카리브해 음악과 뿌리가 같은 셈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쿠바의 아름다운 바닷가에 휴양하러 오는 미국의 부호들이 늘어나면서 사교 음악과 클럽 음악이 발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페레스 프라도가 창시한 ‘맘보(Mambo)’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1959년의 쿠바 혁명은 음악인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혁명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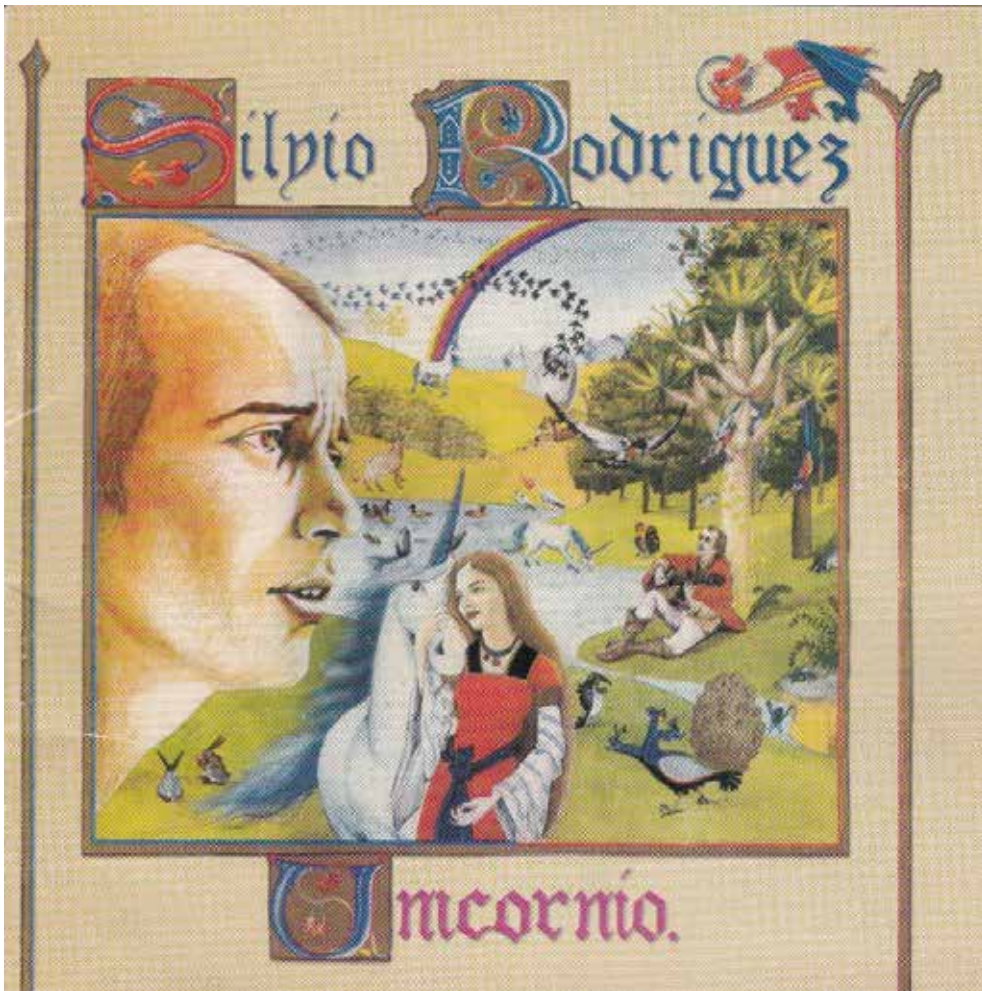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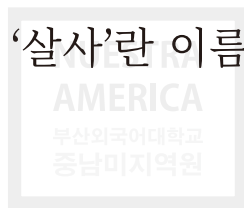


사진3: 쿠바를 대표하는 트로바도르 (음유시인)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앨범 <유니콘>

나빠지면서 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던 사교 클럽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런 클럽에서 흥겨운 댄스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이나 가수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일부는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계 음악인들과 역시 미국에 와 있었던 푸에르토리코계 음악인들이 연주하던 카리브해 댄스 리듬의 음악이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미국의 쇼비즈니스업계에서는 이런 카리브해 댄스 음악에 ‘소스’라는 뜻의 ‘살사(Salsa)’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보통 이그나시오 피네이로의 1930년대 히트곡 <Échale salsita(그것에 살사를 부어)>에서 ‘살사’란 이름을 따온 것이라 보고 있다.



쿠바 혁명 이후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며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져 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흥겨운 댄스 음악이 장려될 수가 없었다. 60년대에 사회주의를 선언한 이후 차츰 ‘새로운 음유시(Nueva trova)’ 운동이 자리잡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혁명 정신을 지지하지만 결코 구호를 내세운 게 아닌, 한편의 시처럼 품위 있으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노래들로 쿠바

사람들의 심성을 반영하는 음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쿠바는 관광업이 국가 산업화 되면서 다시 카리브해 댄스 음악 연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트로바와 댄스 음악이 같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카리브해에는 쿠바 외에도 레게의 본고장인 자메이카, 미국으로 많은 음악인들이 진출하면서 라틴 팝을 이끄는 푸에르토리코 등 세계 대중 음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되어 가고 있다.

한편 <베싸메 무초> 나 <제비> 등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올드팝 음악처럼 오래전부터 소개되어 온 곡들은 주로 멕시코 곡들인데, 관광지로서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축소판 같은 곳이다. 아름다운 카리브해 바다를 낀 칸쿤 및 유카탄과, 2200 미터 고지 문명을 자랑하는 멕시코시티, 원주민들이 사는 치아파스와 오아하카, 눈 내리는 북부 치와와, 근대적인 몬테레이 및 태평양을 낀 아카폴코와 바하 칼리포르니아의 로스 카보스 등 관광 대국이 될만한 다양한 자원들을 지니고 있다. 역사 사회적으로 멕시코는 스페인과의 가장 적극적인 혼혈 현상이



일어난 곳이며 또 아스테카와 마야의 수준 높은 원주민 문명이 있었던 곳이고, 현재로서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주고받는 영향과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환경 때문인지 멕시코 음악은 여러 문화를 다 받아 들여서 혼합이 된 양상을 띠고 있다.

마리아치 (Mariachi) 는 멕시코 하면 생각나는 큰 모자를 쓰고 차로의 복장을 한 한 그룹의 무리로,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가 있는 할리스코 주를 중심으로 발전해 멕시코를 대표하는 음악 연주 그룹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생일 파티나 손님 초대 등 자그마한 집안의 행사 때에도 마리아치들을 초대해 생음악을 연주하게 한다. 멕시코시티는 가리발디 광장에 마리아치들이 상시 대기하듯 보여있다. 마리아치 가수들이 프로로 전향해 솔로를 하는 경우 보통 ‘란체라 가수’라고 불리는데, 시골의 농장을 의미하는 란초(rancho) 에서 나온 말로 벨칸토 성악가 비슷한 창법으로 멕시코 민속 음악이나 사랑 노래를 부른다.

한편 서민들의 삶과 역사가 묻어나는 각 지방의 민속음악은 ‘소리’를 뜻하는 ‘손(Son)’이라 부르는데 각 지방마다 특색이 다르다. 과테말라 가까이에 있는 치아파스에서는 나무판 실로폰 비슷한 마림바를 많이 사용한다. 오아하카 지역에는 산둥가, 요로나를 비롯한 구슬픈 민요들이 많다. 베라크루스 주의 손은 위치에 따라 손 하로초, 손 우아스테코 등으로 불린다.



사진4: <베싸메 무초>의 작곡가인 여류 피아니스트  
콘수엘로 벨라스케스의 흉상

한편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는 볼레로(Bolero)인데, 스페인의 볼레로, 쿠바의 볼레로, 그리고 유명한 클래식 곡인 라벨의 볼레로가 모두 조금씩 다르다. 쿠바의 볼레로는 1883년 페페 산체스의 <슬픔들(Tristezas)>이 최초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발라드 풍의 느릿느릿한 리듬이다. 그렇게 쿠바 볼레로는 고전적인 라틴 리듬의 하나였지만 카리브해를 따라 멕시코로 넘어간 뒤 멕시코적인 정서를 담은 느린 사랑의 노래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마리아치들이 부르는 볼레로를 ‘볼레로 란체로’ 라고 부르는데 멕시코에서는 느리고 애절한 사랑의 노래를 보편적으로 ‘볼레로’ 라고 부른다. 대표작으로는 ‘내게 키스를 많이 해줘’ 라는 의미의 ‘베사메 무초(Besame mucho)’가 있다.

남아메리카로 넘어가 보면 지역별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지금도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잉카 문명이 있었던 곳들로 현재 페루의 쿠스코와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안데스 산맥의 고산 도시들이 바로 그곳이다. 이 지역엔 잉카

문명이 있었던 곳들로 현재 페루의 쿠스코와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안데스 산맥의 고산 도시들이 바로 그곳이다. 이 지역엔 잉카 문명을 비롯한 안데스 문명권의 음악이 아직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스페인 정복 이후 유럽식 음악의 틀에 흡수되는 형태가 되었다. 이 지역 음악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엘 콘도르 파사>인데 이 곡도 스페인식 희가곡의 형태인 사르수엘라를 위한 음악으로 작곡되었다. 물론 그 멜로디는 작곡가 A. 로블레스가 원주민들의 전통 멜로디들을 채집하여 만든 것이긴 하다. 이 지역의 음악은 칠레의 비올레타 파라, 아르헨티나의 아타우알파 우판키 등에 의해 채집되고 소개되면서 남아메리카 음악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안데스 음악을 바탕으로 60년대경부터 ‘새로운 노래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쿠바의 ‘새로운 음유시’ 운동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정적이나 사회 참여적인 노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편 잉카 문명이 있었던 안데스 지역에서 남쪽으로



사진5: 아르헨티나 탱고의 필수 악기인 반도네온. 독일산 악기지만 지금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악기가 되어 버렸다.

펼쳐지는데, 이 지역엔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주로 살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 하면 대표적인 것은 ‘탱고’이다.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가 위치한 라 플라타 강 주변에서 서서히 형성된 사교춤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보카

항구의 사창가에서 추던 ‘천한 춤’으로 여겨졌으나 유럽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 유럽으로 건너가 ‘콘티넨탈 탱고’가 되었다. 다듬어진 스포츠 댄스이자 사교춤의 형태인 ‘콘티넨탈 탱고’에 비해 아르헨티나 탱고는 좀더 강렬하고 자극적이며 작은 아코디언과 비슷한 ‘반도네온(Bandoneon)’이라는 악기를 꼭 쓴다. 카를로스 가르델은 서민들의 삶을 노래한 노래 탱고의 대명사이자 아르헨티나의 연인이다. 이후 아스토르 피아놀라는 ‘누에보 탱고(Nuevo tango, 새로운 탱고라는 뜻)’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는데 단지 춤 반주로서의 탱고가 아닌, 독자적인 연주 음악으로서의 탱고를 개척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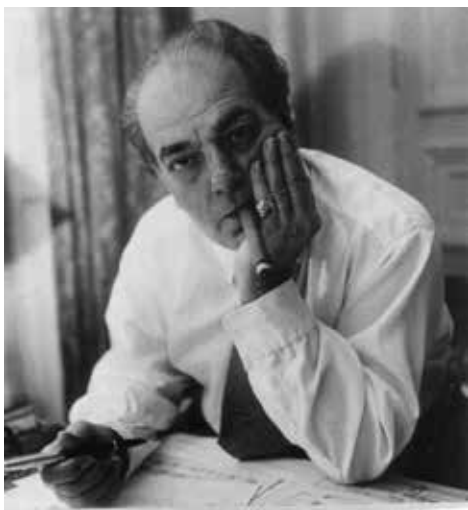


사진6. 브라질을 대표하는  
국민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 로부스.

한편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 브라질은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였기에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들여 왔다. 아프리카 노예들의 춤과 음악이 들어오며 싱커페이션이 강한 삼바가 브라질의 대중적 노래 음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삼바를 재즈 풍으로 세련되게 한 것이 보사노바(Bossa Nova) 로 그외 람바다나 포호 등 민속음악과 쇼루와 MPB 등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음악 내에서 또하나의 음악의 소우주이다. 또 브라질의 국민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보스는 <브라질 풍의 바흐> 와 <쇼루스> 시리즈 등 브라질만이 갖고 있는 장엄한 자연과 넓은 공간감을 그대로 담은 명곡들을 작곡했다. 최근의 세계 음악계의 추세는 이국적인 느낌의 라틴아메리카 클래식 곡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아리엘 라미레스의 < 토착의 미사곡 Misa criolla> 또한 안데스 전통 음악을 미사곡에 담아낸 명곡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연주되고 있다. 또 멕시코적인 향내가 짙은 선율을 담은 멕시코 작곡가 호세 파블로 몬카요의

<우아광고>, 카를로스 차베스의 <원주민 교향곡> 등도 민족주의 음악의 명곡들이다. 또한 베네수엘라에서는 70년대부터 <엘 시스테마>라 불리는 무상음악 교육 제도를 갖추어 빈민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결과인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지휘자인 LA 필하모니의 음악 감독 구스타보 두다멜, 베를린 필하모니에 최연소로 입단했던 콘트라베이스 주자 에딕손 루이즈 등 세계적 수준의 연주자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음악이란 말 그대로 삶의 일부분이자 삶의 위안이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일수록 음악에 기대어 힘을 내고 음악을 즐기며 어두운 현실에 위안을 삼는다. 사실 라틴아메리카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음악이 삶과 역사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즐기고 흔들고 노는, 그저 신나는 라틴 아메리카 음악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흥겨움 속에 숨어 있는 그들의 한(恨)과 삶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라틴아메리카



음악 전문가일 것이다.



사진7: 에콰도르 과야킬의 악사들

## 마리아 이스끼에르도 María Izquierdo의 <고통의 금요일 Viernes de Dolores>

우성주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그림<좌> 고통의 금요일 Viernes de Dolores, 1944년~1945년  
그림<우> 고통의 금요일(부분)

멕시코시티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매혹적인 예술의 도시’였다.

지리적인 위치상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동안 멕시코 문화예술에 많이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터라, 나에겐 지극히 문화적 충격이었다. 유럽문화와 비슷한 맥락도 있지만, 결코 유럽문화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강렬한 자연의 빛과 그를 닮은 색채의 향연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토록 찬란하고 화려한 색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지금의 멕시코 문화예술을 널리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는 20세기 초, ‘멕시코의 르네상스’라 불리던 ‘아름다운 시절 Belle époque’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예술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아름다운 시절, 멕시코 혁명과 더불어 민족적 전통과 색채를 찾으려고 노력한 이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를 비롯하여 여성 작가로는 프리다 칼로Frida Kahlo, 마리아 이스끼에르도María Izquierdo, 레오노라 캐링턴Leonora Carrington, 레메디오스 바로Remedios Varo 등이 있었다. 이 시대 남성작가들이 작품 활동과 더불어 정치적 이슈 등 사회활동에 자연스레 참여하였던 데에 비하여, 여성작가들은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소수계층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일상과 상념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시기였으며, 마리아 이스끼에르도(1902년~1955년)의 <고통의 금요일>은 멕시코 전통 문화예술의 흔적이 여성의 일상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마리아 이스끼에르도는 프리다 칼로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프리다 칼로가 영화와 2차례의 전시회를 통해 많이 알려진 것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좀더 생소한 화가이다. 프리다 칼로, 레오노라 캐링턴, 레메디오스 바로 등과 함께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모더니즘 운동의 대표적 여성 화가로 평가되는 그녀는 멕시코 사회의 여성의 삶과 멕시코의 문명과 상흔, 특히 여성 주체들의 아픔을 초현실적 화풍으로 담담하게 표현하며 멕시코의 고전적 전통성을 강조한 작가로 높이 평가된다. 이스끼에르도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사막의 마른 건조함과, 모든 사물과 풍경을 핀으로 고정된 것처럼 부동의 이미지는 오히려 소리를 내어 지르는 아우성보다 내면의 절규에 귀 기울이게 하는 호소력이 있다.

<고통의 금요일>은 멕시코의 전통 문화예술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2017년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월트 디즈니 픽처스가 배급한 영화 <코코Coco>를 통해 국내에 알려진 멕시코의 축제, ‘죽은 자들의 날Día de los Muertos’은 아스텍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죽은 이를 기다리고 환영하며 함께 즐기는 날로, 멕시코 토착 공동체의 일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과 영적·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에 지정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다. 평소 멕시코 문화를 잘 접하지 못했던 국내 팬들에겐 <코코>는 분명 신선한 소재였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림 3 <코코> 영화 포스터, 2017년



<고통의 금요일>에는 멕시코 축제인 ‘죽은 자들의 날Dia de los Muertos’과 ‘라 요로나La llorona(우는 여인)’의 콘텐츠가 결합되어 있다. 멕시코에서는 매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죽은 자들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날로,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 전통 문화를 계승한 축제를 연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노란 금잔화 꽃들과 선물로 장식한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림 1>처럼 집 안에 특별한 제단을 올린 동시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이 1년에 한 번 가족과 친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세상에 온다고 믿었다. 첫날은 제단을 마련하고, 다음 날은 죽은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날은 죽은 어른들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그림 4 <고통의 금요일(부분)>

그림 5 <행복한 눈물>, 로이 리히텐슈타인, 1964년

‘라 요로나 La llorona(우는 여인)’는 정복자인 스페인 남자와 원주민 여성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 아이가 생길 때까지도 결혼을 차일피일 미뤘던 스페인 남성은 결국 스페인 여성과 결혼을 한다. 그 사실은 알게 된 원주민 여성은 세 아이를 익사시키고 자신도 호수에 빠져 자살하는 슬픈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이 이야기는 멕시코 민족의 운명과도 같은 여성의 운명을 ‘우는 여인’으로 불리며 멕시코인들의 국민민요처럼 노래되어 회자되고 있다. 눈물마저도 소리 내어 울 수 없는 여인의 슬픈 눈물은 1964년 로이 리히텐슈타인 Roy Lichtenstein의 <행복한 눈물 Happy tears>와 비교되기도 한다. 너무 행복해 흘리는 눈물과 너무 슬퍼서 소리도 낼 수 없는 채 무표정으로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과는 대조적이기에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두 이미지는 곧잘 비교되곤 한다. 멕시코의 요로나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20세기 <행복한 눈물>의 의미도 퇴색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스키에르도의 ‘라 요로나’에 표현된 무표정의 눈물은 메마른 사막의 건조함과 그 안에 갇혀 있는 여성의 아우성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그녀만의 초현실적인 풍경은, 자유가 없었던 유년시절과 17세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하여, 1927년 10년 만에 이혼함으로써 힘겹게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했던 자신의 힘겨웠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표현이다.

<고통의 금요일>에서 묘사된 두 개의 제단 사이에서 라 요로나는 마치 멕시코 전통 문화와 조부모의 엄격한 가톨릭 문화 사이에서 어린 시절 힘들게 겪어내야 했던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듯하다. 정물이 지닌 ‘정지됨’과 인물의 ‘절제된 표정’, 인물과 인물의 ‘생기 없는 관계’, 인물과 풍경이 빚어내는 ‘생경함’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멕시코 전통 제단 위에 눈물 흘리는 ‘검은 마리아’와 의자에 앉은 할머니가 쌓은 제단 위의 마리아는 ‘서구 전통의 마리아’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마치 멕시코 전통문화가 서구문화와의 충돌과정에서 생긴 비극적 고통과 애달픔의 상흔을 증언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멕시코성 Mejicanidad’은 이스키에르도가 지향하는 정신세계를 충분히 드러



낸다. ‘원시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멕시코 문명의 아픔과 더불어 여성들의 아픔이 멕시코의 고전적 전통성을 배경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끼에르도의 작품세계는 유럽의 초현실주의자들과는 달리 멕시코의 원시적 문화와 대지의 빛깔을 혼합하여 초현실적 표현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그녀는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추상적인 현실을 꿈꾸는 개별 여성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민족 문화예술의 선봉에선 멕시코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다했던 여성이기에, 멕시코의 전통 문화예술을 자신의 작품에서 꽃 피워낼 수 있었다.

1947년 이스끼에르도는 자신이 항상 멕시코의 고전적 전통성을 먼저 추구했고, 가장 기본적인 소재를 멕시코적인 것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고백한다.

“나는 나의 작품에서 내가 느끼고 사랑한 진짜 멕시코적인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나는 일화나 민속적이고 정치적인 주제는 피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은 표현적이지도 않고 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미술세계에서 그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담아내는 열려있는 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리아 이스끼에르도는 1935년 롤라 알바레즈 브라보 Rola Alvarez Bravo, 레지나 파르도 Regina Pardo, 글로리아 우리에타 Gloria Urieta, 에스페란자 무노즈 Esperanza Muñoz, 셀리아 아레돈도 Celia Arredondo 등과 국가 혁명당에 의해 예술을 주최하고 후원하는 전시 포스터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대열에 합류한다. 1937년 교육부 미술의 미술학과 여성 섹션의 구성원으로, 그녀는 멕시코 미술 경매를 조직하고 정치 선전의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여성도 사회에서 길들여진 여성성을 스스로 중단하고, 여성 스스로가 계급투쟁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끼에르도는 20세기 격동의 멕시코 미술 현장에서 멕시코 문화와 예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여성 예술가로서의 적극적 삶을 살았다.

그녀는 헤게모니적 문화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사회적 인습에 의해 지배당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멕시코 전통 문화와 예술에 뿌리를 두고 표현했다. 전통적인 성 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의 프레임을, 마술적 사실주의(magic realism)에 기초한 초현실주의적 표현에 의한 상징적 표현의 국내 관행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페미니즘 작가로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외연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시티 예술문화 국가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25일 이스끼에르도의 출생 백주년을 기념하여 그녀를 멕시코의 민족예술가로 선정하였다.

마리아 이스끼에르도는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과 전통문화 속에 숨겨져 있던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어 세상을 향해 소리쳤다.

<아우성 없는 요로나의 눈물처럼, 소리도 없이,  
그러나 그 어떤 표현보다 강렬하게.>

## ‘마치스모’에 던지는 쿠바 신영화 <루시아>의 일갈(一喝)

박종욱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라틴아메리카 신영화 운동은 1948년 콜롬비아의 ‘보고타소’와 1952년 시작된 ‘볼리비아 혁명’, 1954년 ‘과테말라 사태’, 1956년 7월 26일 운동으로 시작된 이른바 ‘쿠바혁명’ 등 지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절대적인 개입과 간섭에 대한 저항과 자기 비판적 성찰의 범문화 운동으로의 태동되었으며, 영화 산업의 중심지였던 쿠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발흥하였다.

신영화 운동의 공통분모는 ‘탈식민주의’ 혹은 ‘포스트콜로니얼리티’에 있었고, 60~70년대에 무르익었지만, 그 문화적 여파는 1990년대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적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세밀한 시각에서 라틴아메리카 신영화 운동이 지역별로 동일한 궤적의 방향성을 형성해온 것은 아니지만, 훌리오 가르시아 에스빠노사 감독이 주장하는 ‘불완전한 영화’나 페르난도 솔라나스 감독과 옥따비오 헤띠노 감독이 정의하는 ‘제3의 영화’, 포괄적 용어로서 브라질의 ‘시네마 노보’, 로빠스가 지적하는 ‘새로운 물결’ 등은 비록 용어와 세부적 접근 방법론에 다소의 차이점을 보이더라도, 모두 할리우드가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영화 제작과 공급의 틀이 지닌 신식민적 획일성에 대한 자성의 환기와 지역 사회문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자각의 인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959년 쿠바 혁명의 성공 이후 마련된 ‘쿠바 영화예술산업기구 Instituto Cubano del Arte e Industria Cinematográficos: ICAIC’의 설립은 자국 영화 산업을 통해 미국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영화제작 및 보급 시스템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장치적 기구로서의 변혁을 의미한다. 선언적 출발에서 시작되었던 라틴아메리카 신영화 운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쿠바 신영화 운동은 ICAIC을 중심으로 기능함으로써, 1950년대 이후 급속하게 재편된 세계 영화 산업 구조가 미국 중심의 영화 산업으로 재편되며 본질적 구조 변화가 야기한 ‘세계화’ 혹은 세계의 ‘표준적 가치’를 지향하는 ‘균질화 작업’의 이념화 속에서 벌어지는 제반의 문제들을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쿠바 영화인들 스스로 자기 성찰적 목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실천적 역할에 의미를 집중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보려는 성찰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쿠바 신영화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 신영화에

대한 관심은 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유럽과 미국은 자국의 영화 산업에 몰두하느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펼쳐지는 영화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다. 아바나,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 아이레스, 멕시코시티 등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작된 자국 영화 산업에 대한 각성과 사회적 인식의 실천적 움직임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문화연구는 새로운 경향으로서 라틴아메리카의 영화를 운동으로 간파하였으며, 특히 쿠바 영화의 궤적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신영화 운동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영향력을 벗어나 할리우드의 영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서의 가치를 서구사회에서도 널리 평가받게 되었고, 90년대 이후 많은 대안영화제를 탄생하게 하였다.



쿠바 신영화 운동은 단순히 제국으로서 미국의 영화 산업이 갖는 배타적 균질화 작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쿠바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인습과 사회적 적폐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적 작업이 ICAIC을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나’의 목소리를 만들고, ‘나’와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실천적 행위 과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나의 목소리를 되찾고, 무감각한 인습과 통념에 안주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안적 영화 운동을 지향하며, 사회적 실천에 이바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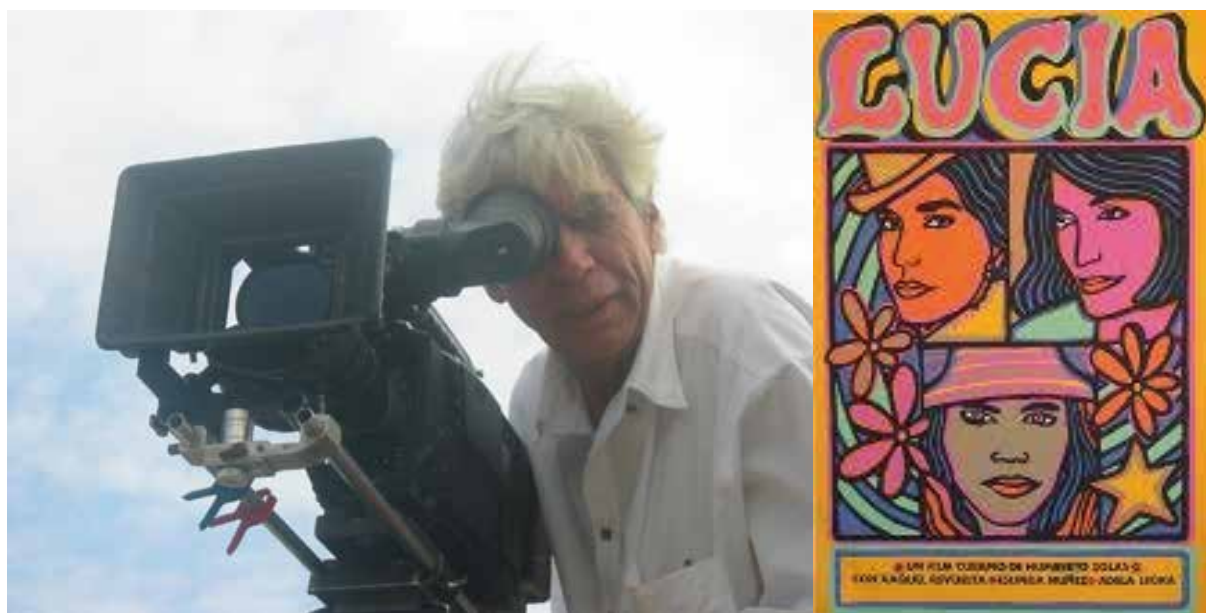
쿠바의 신영화 운동은 혁명 이전의 사회적 혼란과 이념의 충돌을 성찰적 시각으로 고찰함으로써, 미래적 가치를 위한 통찰을 지향한다는 사회적 함의와 필요성에 의해 출발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에 대항하는 일상적 삶에 있어서의 실천적 가치를 표방하였다.



움베르토 솔라스 Huberto Solás 감독이 1968년 제작한 영화 <루시아>는 역사적 콘텍스트와 개인의식 사이의 변증법적 서술에서 관객이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트라우마를 공감함으로써, 사회적 인습과 편견이 지닌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환기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루시아>는 사회의 인습과 통념의 문제점을 환기한다는 의미에서 ICAIC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영화는 [1985], [1932], [196..]의 표제를 단 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피소드가 거듭될수록 여성 주인공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태도는 점차 진화한다.

‘루시아’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쿠바 사회가 지닌 역사적 트라우마의 피해자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 인물들을 통해 그 상징적 의미가 부각된다. 감독은 국제 관계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의 당사자라는 역사인식은 성별, 인종별, 계층별 차이에 따른 이중적 타자가 겪는 트라우마의 상흔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묘사한다. 여성이 겪는 이중적 아픔의 구조적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습과 편견이라는 무거운

죽쇄의 부당함을 여성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 명의 주인공 루시아는 점진적으로 자기 직면의 과제를 풀어나간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985]에서는 호세 마르띠 José Martí를 중심으로 쿠바의 독립을 위한 쿠바인들의 2차 봉기와 관련하여, ‘여성으로 곱게 키워진’ 인물인 루시아가 ‘치자꽃’ 같은 이미지를 지우고, 강간된 뒤 미쳐버린 수녀 페르난디나의 이미지로 중첩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일상적 삶의 의미를 벗어나 사회적 상처에 직면하는 과정이 묘사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932]에서는 마차도 독재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는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직면에서 실천적 행위의 당위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여성의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세 번째 에피소드인 [196..]에서는 국제관계와 이념적 갈등 상황이 아닌 일상적 삶에서 여성의 트라우마를 묘사한다. 소위 ‘마치스모’로 불리는 남성 우월의식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각성이 주제로 부각되는데,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이다. 혁명의 정신이 인간의 해방에 있는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 있는 것이라면, 보다 본질적인 변화는 국제관계와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의식 없이 머물고 있는 인습의 극복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 스스로의 각성에서 출발되어야 바로 잡힐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남편의 생각이 부당하더라도 여성이 먼저 참아야 한다는 ‘마치스모’의 인습은 루시아가 넘어서기에는 벽과 같은 사회적 장애물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넘어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을 넘어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가 주제적으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주어진 ‘노예성’을 벗어나려는 절실한 자기 직면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된다.



사랑의 이름으로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는 남편 토마스에게 루시아는 거둑 자기 선언을 공포한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자신의 소유주처럼 군림하던 남편을 향한 선언인 것이다. 당황하는 토마스의 얼굴이 쭈뼛되며, 노랫말이 들려온다. “[그는] 윤리적으로 망가졌지. 남편으로서 스스로를 망친거야.”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를 더 사랑한다면서, 재결합을 애걸하는 남편을 향해, 루시아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를 소유했던 것처럼 계속할 수는 없어. 나는 일할 거야. 나를 이해해줘. 당신을 나를 남용하지 못해.” 루시아는 수탈된 노예의 후손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적 타자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통찰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지닌 한계에 종지부를 선언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다.



여성 주인공이 역사성과 일상성의 변증법적 대립의 구도에서 스스로 인식의 전환을 체험하며 변화할 수 있다는 주제는 관객의 공감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의 틀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기에 영화 <루시아>는 인식의 공감으로서 실현 가능한 실증적 대안으로서 쿠바 사회의 마치스모에 대한 일갈이다.





『과거 침묵시키기』 (그린비, 2011)  
- 모든 내부는 외부를 가진다 <sup>1)</sup>

권유리아 (부산외대 만오교양대학 교수)

## 1. 역사의 잔류자들

역사는 타자의 침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무엇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라면, 이때 무엇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무엇이 일어났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 대상’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셸-롤프 트루요의 『과거 침묵시키기, 권력과 역사의 생산』 (이하 『과거 침묵시키기』)는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기, 바로 누군가에 대한 ‘침묵’을 키워드로 읽어야 한다. 저자는 서구인들이 어떻게 아이티 흑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켰는지 과거



기록들의 감추어진 맥락을 들추어 낸다.

기록이 아닌 목살, 선택이 아닌 배제로 시선을 바뀌  
음과 양을 뒤엎으면서 역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재구성해낸다. 침묵된 목소리는 역사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성공이라는 해석은 권력과 역사의  
본질을 꿰뚫어 본 탁견이다.

이때 『과거 침묵시키기』의 초점은 왜 침묵  
시켰는가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침묵시켰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은  
소문의 메커니즘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 2. 엇갈린 운명의 상수시‘들’, 침묵의 식민관리술

『과거 침묵시키기』에서 목살과 기만적인 권력의  
결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2장이다. 2장  
‘상수시(San Souci)의 세 얼굴’에서는 아이티 혁명군  
지도자 상수시 대령이 암살당하고, 그에 대한 기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조명한다.

상수시의 상사이었던 앙리 크리스토프는 아이티 독립의 선봉에 섰던 상수시 대령을 살해하면서 독립국 아이티의 왕위에 오른다. 앙리 크리스토프 왕이 지은 화려한 상수시 궁전의 이면에는 식민지 해방과 노예 해방을 외쳤던 혁명군 대령 상수시의 업적, 그리고 거대한 궁전을 만들기 위해 착취 당하는 흑인 노예들의 고통이 침묵되어 있는 것이다. 상수시 대령은 왕에게 살해 당하면서 육체적으로 침묵되고, 그의 시신이 왕에 의해 버려지면서 당대인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결국 이로 인해 역사에 없는 존재가 된다.

『과거 침묵시키기』는 바로 이 역사의 침묵과 권력의 발명이라는 기만적인 커넥션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침묵을 생산할 때 비로소 역사와 권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앙리 크리스토프의 왕위는 흑인노예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상수시 대령을 침묵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난이 발명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굳이 식민지

시기에 한정할 것 없이 현대에 와서도 대부분의 가난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발명된 가난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인정하려 들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가난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하나이듯이, 피지배자에 대한 침묵 역시 그런 것이다. 수많은 사실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어떤 사실을 은폐하는 침묵의 관리술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를테면 제도로서의 침묵인 셈이다.

바로 이 기만적인 침묵의 관리술은 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근대 역사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 놓은 근대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아군보다 먼저 적을 발명했고, 병원을 짓기 위해 환자를 먼저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근대 이후 승자는 스스로 힘을 얻으면서 등장하는 긍정의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외시키는 부정의 권력이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타자를 희생시키는 폭력적인 시스템이 생산하는 권력이다.

이런 이유로 역사에서 상수시 대령은 역사로 환원되지 않는 부재자, 실존을 박탈당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실제 대부분의 역사서에서 상수시 대령은 등장하지 않는다. 저명한 좌파 역사가 에릭 홉스봄조차도 『혁명의 시대』에서 아이티 혁명과 상수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의 시각이 승자의 승자됨의 원인 파악에 주력한 것과 달리, 이렇게 『과거 침묵시키기』는 승자가 만들어지는 침묵의 과정 자체를 포착하고 있다.

### 3. 소문,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외부

역사가 내부의 서사라면, 소문은 외부의 서사이다. 소문은 허황된 과장의 스토리로 치부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억으로부터 배제된다. 원재료가 소멸한 소문은 아무도 진실 여부를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한 명이 아닌 복수의 화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매번 달라지는 유동적인 이야기는 애초부터 신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기록의 외부,

따라서 소문은 역사로 환원되지 않는다.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소문의 주인공은 역사의 사생아로 배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시 대령의 시신이 분실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크리스토퍼 왕은 대령의 시신이 분실된 사실이 보고된 적이 없고, 누구도 어떤 시신이 대령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없게 했다. 기록되지 않는 상수시 대령은 죽음과 사라진 시신은 무수한 의혹만을 남기면서 끝내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소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문은 그냥 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층에 깔린 집단의 욕망에 밀착되어 있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집단의 어떤 구조에 바탕하고 있다. <sup>2)</sup> 가령 물질 덩어리가 클수록 더 쉽게 사로잡힌다든지, 검은색보다는 흰색을 더 좋아한다든지 하는 집단의 욕망이 상수시 대령의 침묵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3개의 상수시 중에서 크고 화려한 2개의 상수시 궁전은 버젓한

역사가 되었지만, 콩고 태생의 노예이었던 상수시는 혁명군 대령이라는 위치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사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소문 속에는 인용의 인용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집단의 이념이 작동한다. 이 소문은 몇 사람의 개인이 결부된 사적인 사건에 머물기보다 대중 속으로 확장되면서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움직이는 매개물이 되었다. 즉 소문은 하나의 특정한 사건과 하나의 주어진 상징적 체계 사이의 관계이자 사건으로서, 그것이 생겨난 연관관계의 틀 내에서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sup>3)</sup> 당대인들의 정서에는 상수시 대령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비상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흑인 노예 출신인 한, 당대인들의 정서에 상수시라는 궁전의 물리적인 거대함과 견고함과 동일하게 언급할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기억도 선택적이듯, 침묵도 선택적이다. 절대권력일지라도 다수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힘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상수시 대령의 제반조건이 당대의 욕망과 맞아떨어졌다면 앙리 크리스토프 왕은 다른 사람을 침묵시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침묵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4. 탈맥락화의 폭력, 콜럼버스의 발명

소문이 그렇듯이, 역사의 흐름은 일관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논리적 정합성을 갖지도 않는다. 소문처럼 역사도 인과관계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구현되는 성스러운 것이 아니다. 『과거 침묵시키기』의 4~5장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는다.

탈맥락화, 즉 역사는 순간을 고립시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4장 ‘안녕, 콜럼버스’의 핵심이다. 콜럼버스의 바하마 착륙일은 명시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1492년 10월 12일 선택하고 이를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념하고 있다. 사실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 발견 기념 행사는 미국의 콜럼버스 기사단에 의해 300년이 지난 1792년에 와서야 비로소

거행되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한 하나를 선택하는 탈맥락화의 기제가 1492년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것이다.

탈맥락화의 폭력이 잘 감지되지 않는 이유는 네이밍의 조정작용 때문이다. 사실을 명명하는 것은 한 가지 방식으로 읽어 내도록 위압을 가하는 권력의 의지가 작동한다. 네이밍(naming)되는 용어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하나의 장을 경계짓는다. 그럼에도 명명작업은 우월감, 황홀감 등 대중적인 쾌(快)의 정서를 자극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기 어렵다. 쾌의 정서 속에서 탈맥락화 된 역사는 기념일 기념식 등의 행사로 대중적으로 소비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권력의 서사가 발명된다. 저자는 권력의 서사를 위해 콜럼버스가 끊임없이 호출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콜럼버스는 19세기에는 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와 문화적 통제 전략으로 활용되다가, 400주년 기념행사에는 스페인 정부가 서구문명의 전파자로 자기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한



국가적 목적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 이민자들을 콜럼버스와 같은 서구문명의 계승자로 동일시하기 위해, 그리고 5장의 ‘과거 속의 현존’에서 말하는 디즈니랜드의 500주년 기념행사는 자본의 자기축복을 위한 쾌락의 수단으로 콜럼버스는 끊임없이 재가공되어 왔다. 말하자면 콜럼버스를 매개로 한 전통의 발명인 셈이다.

저자는 독자에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역사 텍스트 구성에 참여하여 재생산해 낸 결과임을 상기시킨다. 이를 두고 콜럼버스를 둘러싼 기념 행위가 탈맥락화된 하나의 권력상품이라고 지적한다. 역사는 권력의 욕망에 맞추어 그때 그때 다른 콜럼버스를 발명해 왔다. 그러면서 콜럼버스는 점점 모호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

애초부터 소문은 원재료가 없다. 작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발명되면서 실체가 모호한 해석만이 난무한다. 소문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것이

연결되거나,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을 일으켜 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얼굴을 들추어 보여주는 허황된 스토리를 실현한다. 콜럼버스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남부 이민자들의 생물학적인 열등성을 조작한 것도 그러하고, 미국 오하이오의 콜럼버스 시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간의 관련성은 역사적으로 적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처리하면서 끊임없는 역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그러하다.

권력은 역사를 발명해서, 기록을 통해 이를 공식화한다. 권력자는 자신이 남기고 싶어 하고 모습으로 자신을 명명하고 기념한다. 정반대로 대상은 일그러진 모습으로 왜곡되고, 이마저도 나중에는 완벽하게 지워버린다. 콜럼버스의 발명 속에는 이렇게 원재료와 실체를 찬탈당한 소문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 5. 소문의 재해석, 단순한 외부가 아닌 구성적 외부

권력은 타자의 침묵 속에서 탄생한다. 『과거 침묵시키기』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침묵을 벗겨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의 주장 역시 한계로 남는다. 엄밀히 말하면 침묵은 역사의 본성이다. 모든 역사에는 침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침묵시키기』에서 포착한 침묵은 어쩌면 잘못된 역사의 한계가 아니라, 모든 역사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이다. 상수시 대령의 비극은 아이티 역사만의 비극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기록이 아닌 침묵의 관점에서 역사의 비극을 짚어낸 점은 분명 이 책의 미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다. 콜럼버스와 상수시의 역사가 어떤 것을 침묵시켰는가를 현상학적으로 해부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침묵이 불가피한 역사 서술에서

침묵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을 기록되지 않은 단순한 역사의 외부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내부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구성적 외부로 보려는 공간적 은유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외부와 내부의 관계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소문은 단순히 역사의 외부로 배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부를 위협하는 구성적인 외부로 재인식해야 한다. 모든 외부는 모든 사회 구성의 내적인 조건이다. 외부는 내부와 단절된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외부가 아닌 내부를 형성하는 데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외부이다.<sup>4)</sup> 소문이 복수의 화자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것은 외부와 내부가 지속적으로 교섭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존의 근거로서 외부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과거 침묵시키기』에서 기록/침묵을 이분법적 대립

개념으로 보는 한, 상수시 대령, 매번 새롭게 발명되는 콜럼버스는 말 그대로 역사적 외부로 버려진 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침묵된 자들을 구성적 외부로 재해석하면 이들의 침묵은 내부의 갱신을 위해 언제라도 등장해야 하는 구성적 외부로 위상이 달라진다. 이들은 더 이상 무력한 외부자가 아니고, 아니어야 한다. 여전히 집단의 사유체계와 연결되어 있고, 역사 구성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외부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긴요해 보인다.

모든 내부는 외부를 가진다. 건강한 역사는 언제나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진정한 반역은 변경에서만 가능하다.

---

1) 미셸-롤프 트루요, 김명혜 옮김

2) 한스 J. 노이바우어, 황승환 역,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15~18쪽.

3) 이숙인, 「소문과 권력: 16세기 한 사족 부인의 淫行 소문 재구성」,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43, 2011, 69쪽.

4) 장훈교, 「공간적 은유의 전환-‘구성적 외부’에서 바라본 민중과 민중사에 대한 연구노트」,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18, 2008, 14~45쪽.

## 파라과이의 성공적 투자를 위한 단상

**명세봉** (파라과이 한인상공회 회장)

남미에서 살다 떠난 후,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방문한 사람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은 상품이 아직도 팔리고 있음에 놀랍니다.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으면 벌써 경쟁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좀 더 세련되고 질 좋은 상품으로 변해야 했음에도 아직 이곳 시장에선 버젓이 생명을 유지하니, 경쟁에 이골이 난 한국의 사업가나 다른 지역의 교포가 와서 보면 남미는 땅 짚고 헤엄칠 만한 손쉬운 엘도라도 황금시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동업하다 보면 적잖은 텃세와 사기에 끝내 판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슬그머니 모습을 감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미는 풍요로운 자연 환경에 비해 착취와 억압의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유럽에서 건너와 약탈과 착취로 부를 쌓은 기득권이 있는 반면, 삶의 터전을 뺏긴 원주민들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타의로 끌려와 뿌리를 내린 노예의 후예까지 포함한 사회구조를 이룬 곳입니다. 그러한 텃세가 나뉘대로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만의 거주 지역과 삶의 터전을 지켜오는 과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필자가 사는 파라과이는 남미의 중심부에 위치한 바다가 없는 내륙국으로 불리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같은 대국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 중 파라과이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시우다드델에스떼(Ciudad del Este)는 많은 수의 인구와 경제적 위치로 파라과이 제2도시입니다. 세계적 관광지인 이과수 폭포로 유명한 브라질의 포스두이과수(Foz du Iguazu), 아르헨티나의 푸에르토이과수(Puerto Iguazu)와 3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3개 나라 주변 도시들 모두 합쳐 약 100만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세계 제2위의 수력 발전소인 이따이푸  
댐도 있어 종종 이 댐을 볼모로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정치적 협상이 교묘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브라질 Foz du Iguacu에 위치한 이과수폭포



시우다드델에스페가 속한 파라나 주는 브라질 기업과 같이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국경 지역의 비옥한 땅을 매개로 대두 농사에 투자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과이 영토 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마킬라 법’ 아래 값싼 전력과 무노조 저임금의 파라과이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브라질은 물론 중국과 한국인 기업이 이곳에 공장을 차리고 있다 합니다.

이곳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파라과이와 브라질을 잇는 우정의 다리는 1965년 3월 27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많은 물자는 물론 수많은 보따리 장사꾼과 관광객들이 국경이라는 지역성 특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 차이로 싸고 좋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러 다리를 넘어 이 도시로 오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상징하 듯 시우다드델에스페는 태생부터 상업도시였다고 합니다. 바로 옆 나라 브라질의 복잡한 경제 구조와 세법, 높은 물가로 처음부터 밀수가 성행했었고 1990년대에는 브라질인

들의 엄청난 구매력에 힘입어 한때 마이애미, 홍콩과 더불어 3대 무역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파라과이와 브라질 두나라의 정치적 문제로 도시의 존폐가 좌우되려 한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해가 갈수록 도시는 번창하여 이제는 과거의 무질서한 밀수와 위조, 보따리 장사의 어수선한 시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멋진 대형 쇼핑몰과 건물이 나날이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 잡힌 관광과 상업도시로 변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달러화의 약세와 낮은 은행 금리로 인하여 이곳의 외국인들 특히 아랍인들이 외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이곳 부동산의 투자를 시작하고 있으며 브라질 인들은 자국의 높은 세금을 피해 이곳으로 사업체를 옮기고 집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 시장 또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1000명의 한인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옷장사와 잡화, 전자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1962년 수교 이래 1965년 농업이민 선발대

10세대가 아순시온항에 도착한 이래 우리 한인들은 낯선 남미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이내 실패하고 브라질에서 옷이나 장신구 등을 떼다 파는 소위 ‘벤데’로 전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계기로 한국을 떠난 필자의 가족 또한 선배 이민자들의 권유로 등짐장수에서부터 숯 장사, 식품점 직원 등을 거쳐 장사의 길을 닦았습니다. 현재 사우다드델에스테 중심가에서 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작은 다른 이민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이곳에서 수입과 소매 사업을 해 온 교민으로서 느끼는 상업도시 사우다드델에스테의 비즈니스 장점과 우리 한인기업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는 상파울루와 같은 거대한 대도시 상권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경 500m 정도에 모든 것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사꾼이나 관광객이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남미 도시에 비교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도시이며, 브라질 전역에서 이과수 폭포를 보러 오는 관광객과 남미인을 상대로한 쇼윈도 및 상품은 물론 문화전시장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잘만 하면 한 상품당 일년에 100만 단위 이상의 판매고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의 국경을 마주한 국경도시 시우다드델에스페는 상품은 물론, 인적자원, 기업 그리고 문화까지 남미 전역으로 수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1990년대초 일본 제품에 밀려 알려지지도 않았던 삼성과 엘지의 전자제품은 이곳을 통해 브라질과 남미 전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한국의 Kerasys 또한 국경도시가 가진 이점을 이용해

남미 전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필자가 설립한 Shopping Terra Nova에서는 Kerasys는 물론, 한국의 다양한 화장품과 문화를 남미를 넘어 이과수 폭포를 여행하는 전세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Beauty class에서는 한국의 미용기술과 K-pop을 현지에 전수하고 있고 나아가 남미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한국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의 국경도시 시우다드델에스테가 가진 장점으로 일종의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과 규제가 적다는 장점이 상품 수입을 자유롭게 해 구태여 처음부터 큰 규모의 물건 수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사업체를 가진 사람은 최소한의 투자로 다양한 물건을 들여와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남미 시장 특히 파라과이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전문 기술보유와 현지화 가능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초기 이민세대는 전문적인 기술 보다는 낯선 땅에서 자리잡기 위해 닥치는 대로 여러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 마구잡이 식의 장사 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는 성공한 한식당 Restaurante SU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식당은 한인만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이 가게는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현지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사장은 한국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한식 전문가로서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한식을 개발하며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식당의 위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닌 부유한 현지인 동네에 자리잡고 있어 한식의 현지화는 물론 고급화까지 이뤄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이민 후손들도 막연히 부모의 가게를 물려받기 보다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장점을 살려 현지 시장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차세대를 위한 초기 이민세대들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기와 도전의식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도시만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젊은 차세대들이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시우다드델에스테가 가진 국경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간추린 소식

### 1. UNAM대학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구소 협정체결 (2019.02.07)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2월 7일  
멕시코국립자치  
대학교 (UNAM)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연구소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IALC)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중남미지역원의 임상래 원장과 CIALC의 Rubén Ruiz Guerra 원장은 협정 당사자들로 멕시코 UNAM대학교에서 본 협정식이 거행되었다.



## 2. 2018년 중남미지역원 인문한국플러스 학술대회 개최 (2018.12.18)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 19일 양일간 인문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의 주제는 “라틴아메리카의 평등과 불평등의 변증법,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로 본 원 소속 및 국내 연구자들 간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HK 사업 (2008-2018)연속 및 확장 선에서 지난 09월 부 HK+ 사업을 진행하게 된 중남미지역원의 선도연구 아젠다, ‘라틴아메리카 평등과 불평등의 변증법’으로 본 학술대회는 차기 7년 연구의 방향타 및 Kick-off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학술대회였다.



### 3. 한국연구재단 제8회 인문학콘서트 개최 (2018.11.23)



중남미지역원은 2018년 11월 23일 오후 7시 부산 금정구 남산동캠퍼스 만오오디토리엄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향기를 찾아’를 주제로 제8회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인문학콘서트는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장 임상래 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구 반대편과 상생하기: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향기를 찾아’라는 주제로 한국문학번역원 고영일 전문위원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열정의 나라 중남미를 느낄 수 있는 탱고 공연(카페 데땅고: 이정희·신승엽)이 이어졌다. 덧붙여 강연자 고영일 박사와 조구호 (한국외대) 교수님 그리고 청중들간의 토론 장을 통해 탱고에 대해 한층 더 다가가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4. 중남미지역원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18.08.09 - 08.11)

중남미지역원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2018년 8월 9일부터 3일간 제주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 첫째 날에는 중남미지역원 차세대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라틴아메리카 대통령 선거와 전망 및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화라는 제목 하에서 지역원 교수들의 발표로 이어졌다. 마지막 날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과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 5. 2018년 하반기 워크숍 개최 (2018.10.12 - 13)

중남미지역원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화랑촌에서 사업 출범함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도 2학기 활동계획 확인 및 연구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 6. Global Research Network (2019.01.24)

중남미지역원 공동연구원 이광윤 교수 (Global Research Network 책임교수)와 김영철, 구경모, 그리고 이태혁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동아시아 이민자 유형관련 2차년도 연구과제를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했다. 2019년1월 24일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며 “남미의 동아시아 이주민들의 이민문화지형 Immigration Cultural Topography of East Asian Immigrants in the Southern Cone”이라는 주제로 본 대사관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7.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해외현장활동: 도미니카공화국 (2019.02.09 - 19)

중남미지역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해외현장활동을 지난 2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본 사업의 김영철 교수와 이태혁 교수, 그리고 중남미 학부생 등 9명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원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 인근 멘도사(빈민촌)와 무차아구아(산간) 지역을 방문해 교육봉사를 펼쳤다.



## 8. 브라질 주이스지포라연방대학교 방문 및 공동연구 추진 (2019.02.12)

중남미지역원 임두빈 교수는 브라질 주이스지포라 연방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사회정책대학 Alexandra Eiras 학장 등 학교관계자들과에게 HK플러스 사업의 연구아젠더를 소개하고 공동연구 추진을 논의하였다.

지리적 거리와 12시간 차이의 시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디오컨퍼런스의 활용을 논의했고 상호 간 연구데이터베이스 공유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향후 공동학술대회, 공동프로젝트, 공동출판 등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연구의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



## 9. 인문학센터 운영을 위한 부에나 비스타 (라틴동호회 모임) 정기모임 실시 (2018.11.26 및 2019.1.28.)

HK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중남미 지역원은 라틴아메리카 인문학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및 인문 소양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본 센터는 부산/경남권 라틴문화 애호가 모임 ‘부에나 비스타’를 조직하여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명저읽기 및 명화감상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올해 8월 26일까지 총 8회로 예정되어 있다.



